



光州日報



지리산 맑은공기 서울서 '마신다'

'지리산 노고단 맑은 공기를 서울 한복판에서 마실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9일 서울 용산민자역사내 현대 아이파크몰 4층 레포츠크럽에 국립공원 첫 홍보관인 '자연in'을 개관, 방문객이 지리산의 신선한 공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리산 노고단에서 공기 압축기를 이용해 공기를 직접 산소통에 채취하고 압축된

국립공원공단 용산에
홍보관 '자연in' 개관
무료 호흡용 마스크로 마실 수 있다.

산소통을 홍보관으로 운반하게 되며 오후 3~5시 희망하는 방문객 누구나 무료로 2~3분간 호흡용 마스크로 마실 수 있다.

1천450㎡ 부피의 지리산 공기를 11ℓ 크기의 산소통에 압축한 것으로 1주일에 산소통 20개 분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산소통 개당 2시간 정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보관 개관식은 이날 오후 1시 박화강 공단 이사장과 국립공원 명예대사인 영화감독 임권택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자연in'은 자연(自然)과 인(人·in)을 합쳐 '자연 속으로'의 의미를 부여한 로고다. /연합뉴스

후원학원 창학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새로운 담시기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ac.kr

모천회귀 연어의 '꿈'



연어의 고향은 연어의 무덤이자 요람이다. 망망대해 태평양에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모천(母川)으로 회귀한 연어는 새로운 생명을 통해 또 다른 희망을 찾는다. 다사다난했던 2006년이 저문다. 모천회귀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놓는 연어처럼 새해에도 희망과 기대를 걸어보자.

/캐나다 밴쿠버섬 골드스트림 주립공원 = 위직림기자 jwji@kwangju.co.kr

“고향은 모두의 희망입니다”

'거센 물살을 헤치는 힘찬 꼬리 지느러미. 1m 가량 높이의 수로(水路)를 훌쩍 뛰어넘는 힘찬 몸짓'. 죽을 힘을 다해 강을 거슬러 고향을 찾아 올라가는 연어의 모습이다.

연어는 알래스카 심해와 쿠릴열도, 베링해 등 태평양 연안 11만리 대장정을 마치고 4~5년 전 태어난 자신의 고향이자 어머니의 품, 모천(母川)으로 회귀한다.

연어의 천국인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밴쿠버 섬의 골드스트림 주립공원. 매년 11월이면 이곳에는 3만 마리의 연어가 돌아온다. 이들은 독수리와 갈매기의 날카로운 부리, 바다의 포식자 물개·바다표범을 피해 머나먼 고향을 찾아온다.

고향에 도착했을 때는 슬픈 고비

와 어려움을 극복하느라 몸은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다. 지느러미는 찢기고 온몸은 상처투성이다. 하지만, 고향을 찾는 이들의 몸짓

연어는 지치고 찢겨도 母川을 찾습니다
죽음으로 낳은 새 생명에서 희망을 보듯
이젠 시련·아쉬움 털고 새희망 일곱시다

은 힘차기만 하다. 그동안의 삶의 이유를 남길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이다.

고향을 찾는 연어는 계곡 바닥의 자갈과 바위 틈에 보통 2천500개~

3천500개의 알을 낳는다. 온몸의 영양분을 모두 알에 담아 준 까닭에 건강했던 검푸른 몸도 허얇게 탈진, 죽음을 맞는다.

그래도 연어는 슬프지 않다. 새로운 생명을 통해 또 다른 희망을 찾기 때문이다. 죽음으로 낳은 알은 새해 봄 부화해 또 다시 망망대해를 찾아 새로운 희망을 찾아 떠난다.

또 한해가 저문다. 북한 핵실험, 부동산 광풍(狂風), 성인오락게임 바다이야기, 법원과 검찰의 갈등 등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다. 끊이지 않는 여야간 정쟁도 전국민들을 정치 무관심과 허탈감에 빠지게 했다.

하지만, 지난 세월에 대한 시련과 좌절, 아쉬움을 모두 털어야 할 때다. 연어가 온갖 시련과 고비를 모두 극복하고 고향을 찾아 자신의 생을 마감하며 새로운 희망을 찾듯이, 우리도 이제 새로운 한 해의 바람을 다짐해야 하는 시간을 맞았다.

고향을 찾는 연어의 힘찬 몸짓처럼 다가오는 새해에는 다시 한번 희망을 향해 도약하자.

/캐나다 밴쿠버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기존 입대자도 복무단축”

靑 정책실장 “한달내 병역제도 개선안 발표”

군복무기간 단축과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제도 개선안이 다음달 발표된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청와대브리핑에 개제한 '병역제도 개선'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한다'라는 글을 통해 "병역제도 혁신방안은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법정부 차원의 마지막 종합 검토와 검증을 거쳐 한 달 이내에 그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실장은 "정부로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제도화를 마친다는 목표 하에 정치적 상황이나 대선일정과 무관하게 관련작업을 착실하게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달 개선안 발표 배경과 관련, "이를 대선용 선심성 정책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오히려 한달 이내에 정책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신

성한 병역의무문제를 대선용으로 활용될 소지 자체를 아예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선안 내용에 대해 "핵심은 선진 정예강군 육성과 병역 형평성 확보"라며 "전투력을 강화하고 군복무를 선호하게 하는 차원의 군복무체계 혁신, 병역의 형평성과 자원 활용의 효율화를 기하는 측면에서의 사회복무제도 도입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변 실장은 먼저 군복무체계 혁신방안으로 ▲유급지원병제 도입 ▲예비군 편성제도 개편 ▲군복무기간 단축 등이 포괄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군복무기간 단축이 결정될 경우 입대시기와 관련하여 그 시기 여하에 따라 개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세세한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말해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입대자의 복무기간 단축도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직장인 月임금 183만원

서울보다 46만원 적다

전국평균 크게 밀돌아

주 5일제 확대 실시 등으로 인해 광주지역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크게 감소했지만 임금 수준은 여전히 전국 평균을 크게 밀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고액 임금직종인 금융·보험업 등이 집중돼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짧게 일하고 급여는 가장 많이 받는 등 근로조건 측면에서도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29일 노동부의 '2006년 노동통계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국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은 199만9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7만2천원보다 6.8%(12만7천원) 증가했다.

광주는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183만4천원으로 지난해 172만2천원보다 6.5%(11만2천원)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전국 평균보다 8.2%(16만5천원) 낮은 것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중하위권인 10번째에 해당하는 등 임금 구조의 취약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월 급여액이 201만9천원에 달하면서 서울(229만3천원), 울산(219만9천원), 대전(207만5천원) 등에 이어 전국 4번째로 높았다. 전남의 임금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여천산단, 광양제철 등 상대적으로 급여액이 높은 대규모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천산단과 광양제철을 제외한 전남 지역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이보다 훨씬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경희기자 choice@

목재가공산업의 새이름 **자이리**

목재가공산업의 모든것 "자이리" 이젠 목재가공에 관한 모든것은 "자이리"와 상의하세요!

자이리 사업분야

- 가구산업(사무용, 생활) -가구사업
- 목재제품사업
- 목재수출사업
- 합판가공업
- 목재수입업

자이리는 광주·전남 목재가공사업조합의 공동브랜드입니다.

문의 : 전남 목재가공사업조합
전화번호 : 061-337-5535
팩스 : 061-334-5535